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13일(월) 제 3016호



도,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위해 2억 원 기탁 10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이 제주항공 사고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탁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철수 회장, 김관영 도지사, 이선홍 전북지사 회장, 임영옥 적십자사 모금전략본부장.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도, 수산업 지속가능 성장 기반 다진다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⑥ 수산업 관련 특례] 시험어업·시험양식업 운영 간소화로 새로운 환경 대응 낚시어선 15톤미만 상향 규제 완화...釣士 유치로 어촌 활력 유어장 안전규정 강화...해양레저 체험 활성화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특례를 통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 수산분야 특례는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 운영, 낚시어선의 이용, 수산종자산업·수산업 육성 및 유어장의 지정 등으로 우리 지역 특수성과 변화하는 수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

성화는 물론,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인 시험어업과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해 운영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북 지역 해안에 새롭게 출현하는 어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양식하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법령에 규정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 등을 준수해야 할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등 날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법

령 개정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소요돼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반영으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채취방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어선업의 규모도 기존 10톤 미만에서 15톤 미만의 허가 어선으로 완화하고, 유어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레저 체험객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자치도의 수산업 특례는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수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어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정원으로 Green 전북'...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

도, 제2차 정원문화산업 진흥 29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원 인프라 1천82개소 확대, 600만 명 체험 기대 공무원이 계획수립, 370개 신규 정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자치도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그린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정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화를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과제를 수립했고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공무원이 학습운역을 직접 수행해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도는 2024년 기준 712개소의 정원 인프라를 2029년까지 1천8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은 물론 생활

밀착형 숲, 도시숲,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정원 형태를 포함하며 도민과 관광객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정원문화 체험은 24년 280만 명에서 29년에는 6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원산업의 확대와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원식물 및 소재 개발, 기술 연구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정원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선다. 정원축제, 박람회, 문화행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원 조성에 참

여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나눔길과 복지시설나눔숲 조성도 적극 추진된다.

시민정원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정원관리인 등 정원 관련 전문가 1천465명도 추가 양성해 2029년까지 총 3천71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정원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원 기반 관광과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정원은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정원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 세계 톱 메이요클리닉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맞손'

세계 1위 美 메이요클리닉, 전북 탄소산업진흥원 방문 탄소복합재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공동 협력 추진 탄소소재 혁신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 마련 기대

전북자치도가 세계적 의료기관과 손잡고 탄소소재 의료기기의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신경외과 켈달 리 교수 연구팀이 지난 10일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탄소복합재 기반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이요클리닉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본사를 둔 130년 역사의 종합병원으로, 미국 내 최

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의 세계적 탄소소재 기술력을 의료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켈달 리 교수는 탄소진흥원이 개발 중인 탄소복합재 의료기기와 전북 기업(㈜CBH)의 수송용 테이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뇌 수술에 사용되는 정위 고정장치 경우, 기존 알루미늄 소재 대비 무게는 3분의 1로 줄이고 강도는 2배 이상 향상된 점을 높이 평

가했다.

리 교수팀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활용 가능한 탄소복합재 의료기기 개발에도 주목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수술 중 MRI나 CT 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로, 탄소소재 특성을 활용하면 더욱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북의 탄소기술은 의료기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리 교수는 도파면 센싱 기술 등 첨단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의 탄소산업이 의료분야로 진출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제1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눈꽃축제

~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개 장 _ 2024. 12. 28.(토) ~ 2025. 02. 09.(일)
 (임시개장 2024.12.25~ 12.31/ * 개장초기에는 날씨 사정으로 휴장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주세요 T.063-635-0301)

장 소 _ 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동산, 눈꽃등반

주관_(사)운봉애양회 후원_ 남원시 · 운봉읍 · 운봉읍사회봉사단체

도, 5년 연속 악취실태조사 공모 선정

남원시 주생면 최종 선정...대기질·악취 농도 예측 모델링, 실효적 개선 대책 기대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남원시 주생면이 최종 선정되면서 2021년부터 5년 연속 도내 지역이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남원시 주생면은 축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이 밀집돼 있고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도와 남원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악취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악취실태조사 공모를 신청했고 실태조사 필요성을 심사위원과 환경부에 적

극적으로 설명해 공모에 선정됐다.

악취는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 동안 악취 측정, 확산 예측 모델링 등 정밀조사를 직접 시행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 선정된 진안 마령면의 경우 지난해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고 2023년 완주 비봉면과 2024년 정읍 덕천면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남원시 주생면 악취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해 지역 생활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도시군의회의장協,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올림픽 유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9일 익산시의회에서 제288차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과 전북권 광역전철망(서틀) 구축 건의안,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광석 무주군의회의장이 제안한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김경진 익산시의회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서틀) 구축 건의안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호남선·전라선·장항선과 신설 예정인 서해선·새만금선 등 철도 연결을 통한 미래 철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는 "도내 주요 도시 간 교류로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익산시의회에서 제288차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등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생활권·경제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광역전철망(서틀) 구축 사업에 도내 도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남관우 전주시의회의장이 제안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고, 정부의 올림픽

픽 유치 의사 적극 표명, 중앙-지방 정부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장관, 각 정부 부처와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전북자치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도, 24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받아

전북자치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스마트 축산 전환을 지원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작년과 달라진 점은 2015년 이후 허가(등록)받은 농

가도 이차보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사육면적에 따라 지원한도가 결정된다.

중소규모 농가는 연리 1%, 대규모 농가는 연리 2%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축산환경 개선 시설 설치, 스마트 축산 시설 구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 축산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2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가축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그리고 스마트 축산 도입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생생한 전북 소식 전달, 블로그 기자단 16기 출범

2025년 전북자치도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총 35명(일반 기자 30명, 전문필진 5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면서 전북 온라인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기자단에는 역사·문화 전문가, 여행 전문가,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전북의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

다채로운 콘텐츠가 기대된다.

특히, 전문필진으로 선발된 5명은 사진, 일러스트, 영상, 문화, 산림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올해는 여행 영상 크리에이터, 독립서점 활동가, 산림전문가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를 통해 한층 깊이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발대식에서 "전북의 특별한 매력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블로그 기자 덕분이다"며 "기자단의 활동이 전북의 이미지를 더욱 빛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자치도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일반기자 30명 선발에 135명이 지원해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2009년 4월 개설돼 올해 1월 현재 누적 방문자 2천3백44만2천388명에 달하며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주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정혜민 기자

2025년 전북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지원, 지속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수당 지원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추가로 받으며 기존 지급 대상자인 74명에 대해서도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등을 재확인한 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대상자 중 전북 도내에 6개

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방식은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6천988만원 수준) 가구의 공헌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생활보조비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공헌자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부터 연중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석 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두가 차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도,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에 2억 기탁...종합 지원책 가동

전북자치도는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 10일 전북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탁금은 적십자사의 전문 구호 시스템을 통해 유가족에게 필요한 인력, 물품, 심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장례현장에 심리활동가를 파견해 유가족의 정상 회복을 돕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지원하고 도민안전보험금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도의회, 이미령·김원오 법률고문 변호사 신규 위촉 의정활동 폭 확대 기대

전북자치도의회의장(문승우)은 지난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변시 8회)는 법무법인 대인과 대륜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의 구성원이다.

김 변호사(변시 12회)는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태&규'에 소속돼 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년부터 2년이며 ▲의정활동 폭 확대 기대

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 ▲자치법규 해석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해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에 지방의회법이 심사 중이므로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관 기자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환급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된 세금은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유가족들의 아

픔을 함께 나누고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교통 안전 수칙

- 1 겨울철 새벽·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2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3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금지
- 4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등 운전 시 서행운전
- 5 운행 전 기상상황 확인,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6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

전주시-에픽게임즈, 미래인력 양성 합심

시, 영화영상기술혁신 목적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 선도 정책지원·산업발전 전략 공동수립 등 6가지 협력약속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도약 중인 전주시가 영화·영상산업의 기술 혁신과 미래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이자 언리얼 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설립자 겸 대표 팀 스위니)와 손을 잡았다.

전주시와 에픽게임즈는 지난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에픽게임즈 코리아 박성철 대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허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의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전주시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발전 전략 공동수립 ▲전주시 버추얼 프로덕션 특화 커리큘럼 공동개발 ▲전주시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취·창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협력기관 상호 홍보 및 대내외 협업체계를 통한 위상 강화 등 6가지 사항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인 '미래 영화영상 기술 혁신'과 관련,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전주시·교육청·관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특화 자원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에픽게임즈는 전주만의 특화된 커리큘럼 개발과 전주시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34년까지 10년간 575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영화촬영 거점 조성 ▲미래영화영상 기술 혁신 ▲세계적 영화관광 도시 조성 ▲강한 영상산업 생태계 마련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은 게임, 영화, TV, 애니메이션, 건축, 자동차 등 전 산업에서 최첨단 콘텐츠, 인터랙티브 경험, 몰입형 가상세계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영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감독 및 스튜디오들과 함께 개발된 UE5(언리얼 엔진 5)는 영화 제작자들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결합해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버추얼 프로덕션 툴셋을 제공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기업과 지역이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도약 중인 전주시가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이자 언리얼 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손을 잡았다.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에픽게임즈와의 이번 협업 모델을 토대로 전주 영화영상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약의 소감을 밝혔다.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대한민국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며,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를 꿈꾸는 영화의 도시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에픽게임즈는 공동 개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전주 지역의 전문 인력에게 언리얼 엔진의 최첨단 기

술을 제공해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산업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진흥원장은 "앞으로 전주시가 가진 다양한 문화 자산과 에픽게임즈의 기술력, 그리고 진흥원의 매니지먼트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언리얼 엔진의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도입을 통해 전주시가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태 기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응급체계 구축

도,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처치 지도까지...도민 안전 확보

전북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해 지난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문 자격을 보유한 행정요원 1명, 4개 팀으로 구성돼 주야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에 나선다.

각 팀은 구급 분야 전문 자격을 보유한 팀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으로 구성,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와 병원 선정 및 이송 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응급환자 의료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3인 상담체계를 강화해 3인 상담과 1인의 상담·조정·통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목적자와 상담 요원이 영상통화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신고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카드뉴스, 음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로 구급대원의 업무 경감과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올해부터 구축·운영되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기반으로 구급 현장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선정 시스템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줄포읍 육용오리농장서 H5형 항원 확인...출입통제 살처분 예정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일 부안군 줄포읍 소재 육용오리농장(2만4천 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 시 전국적으로 22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육용오리 농장은 지난 10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정기검사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밭

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인 전국(㈜다솔 계열 오리농가와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한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할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자치도는 겨울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본감시 대상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3.6배가 증가했고 특히 영유아(0-6세)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58.8%를 차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활동력이 저하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C에서도 생존하며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만큼 감염력이 매우 강해 겨울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된 감염경로로는 오염된 물(지하

수), 음식물(생굴, 조개 등 익히지 않은 수산물 등)을 섭취한 경우나 접촉, 환자 분비물 등 사람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백신이 없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명옥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최우선은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하며, "특히 개인위생과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84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3억원·소상공인 2천만원까지·용자에 대한 최대 3.5% 이차보전금 지원

전주시가 소비침체, 고환율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184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17일까지 접수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

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용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용자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 주 우수업체 및 이노비즈 기업에는 3.5%씩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

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용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의 전주시 관내 지점에서 2개월 이내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시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을 통한 대출 상담확인이 제출이 필요하다.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전주소식내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

/김영태 기자

전주시, '영양더하기 사업' 추진...지역자활센터 맞손

전주시와 전주시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밀반찬과 도시락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이금안 노인복지과장과 고은하 전주시지역자활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양더하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영양더하기사업'에 선정돼 전주시와 함께 추진한다.

영양더하기 사업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중 하나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락과 밀반찬은 질병 및 거동 불편

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영양음식은 퇴원 등으로 맞춤형 식이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요리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음식재료가 제공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서 지난 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의 패키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금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전주시지역자활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보급 지원사업 33억원 투자...31일까지 대상자 모집

미래농업 역량 강화 목적...농업기계과 농촌자원, 식량작물 등 5개 분야, 33개 지원사업에 33억 7천만원 투입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2025년도 농업기술보급 지원(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 시는 농업기계과 농촌자원,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등 5개 분야, 33개 지원(시범)사업에 총 33억7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 대응, 친환경 농업 관련 신기술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및 장비 지원 등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농업환경 변화

에 따른 미래농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보급품 종자대 지원과 비 모판상도 및 육묘상 처리 지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지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대상 농지가 모두 전주시 소재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

과 사무실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현지 조사 등을 거쳐 2월 중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6개 국가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사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범사업 심사 전까지 교육을 미수료할 경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유)더본건설 분야르페, 전주시에 백미150포 기부

(유)더본건설 분야르페(대표 진재석)가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10kg 150포(500만원 상당)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진재석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더본건설 분야르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더본건설 분야르페는 1995년 6월 설립된 회사로 오피스텔 및 호텔, 병원, 아파트 등을 건설해 공급해오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긴 설 연휴... 얼어붙은 전북 경제 도움될까?

27일 임시공휴일로 최대 9일 황금연휴...급여생활자 반기는 반면 소상공인 등 내수 진작 회의적 관광업계, 수요 증가 긍정적 전망...제조업체·골목상권은 생산 차질·매출 감소 우려

정부가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전북 도내에서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6일간의 설 명절과 맞물려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를 맞게 된 직장인 등 급여생활자는 반기는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계는 회의적이다.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연휴 특수가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있지만, 실제 내수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광 부문에서도 명일이 교차한다. 장기 연휴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는 고무적이거나,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여행으

로 수요가 집중될 우려에서다. 현재의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냉각 상황에서 단순 휴일 확대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역내 자금 순환보다 유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긴 설 연휴를 마냥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도내 산업계도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다. 연속 공정이 필수적인 제조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식품업체나 24시간 운영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예상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명절 문화의 간소화로 전통적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부 관

광주 주변 대형 상권만이 제한적 매출 상승을 보일 것이라 예측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의 타지역 이동으로 실제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는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날씨가 좋고 각종 축제가 집중된 시기여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자체는 순기능이 분명하나, 이번 설 연휴의 경우 계절성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비정규직 생산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가족 행사나 회식 등으로 인한 소비 진작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의 여파로 고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연휴 기간 관광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사전 준비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간 연계 관광 프로그램이나 숙박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적극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2달 연속 하락세 고금리·경기침체 영향, 낙찰가율 전월대비 1.1%p 하락

전북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 9일 발표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80.8%로 전월 81.9%에 비해 1.1%p 떨어졌다. 전 북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해 10월 91.6%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매 가격 지표인 낙찰가율은 감점자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

설 명절 앞두고 닭고기·달걀 가격 오를까 소비자들 '불안'

사육값 상승·AI 확진 등으로 시민들 우려 확산...道 "가격 상황 주시,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육값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겹치며 닭고기와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사육값 상승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겹치며 닭고기와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부안급 줄포음에서 도내 7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가 17곳에서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확진 사례가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의 232만 9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산란계 사료와 육계 사료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용 배합사료 가격은 2021년 kg당 457원에서 2024년 552원으로, 육계용 배합사료 가격은 2021년 503원에서 2024년 611원으로 상승했다. 이렇듯 AI 확진 사례가 나오는 동시에 사료 가격도 상승하자, 명절을 앞두고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오를까 불안해하

는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시민 최영희씨(53)는 "요즘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이 있기는 한가 의문이다"며 "그래도 달걀이나 닭고기는 다른 식자재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

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사실 달걀 한 판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꽤 오래 전의 이야기인 것 같다"며 "명절을 앞두고 밀가루 가격도 꽤 오른 상황에서 달걀 가격

지 오를까 걱정이스럽긴 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북 지역 특란 30구의 가격은 7186원으로 지난해 전국 평균 가격인 6423원보다 11.88%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우려에 전북도는 꾸준히 달걀 등 가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AI와 관련해 아직 닭고기나 달걀 가격 관련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며 "닭고기는 오히려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수요량이 줄어들어 소비 진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걀의 경우 유통업체 수급 상황과 가격 변동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이 바뀌어 가격 관련 상승 징후가 보일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 등을 통해 달걀 수급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새만금청, 입주기업 1:1 방문 지원사업 설명회 실시

근로자 통근버스·임대주택·전문가 자문 등 올해 기업 지원 강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월 한 달간 직접 입주기업을 1:1로 방문해 '25년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새만금청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해 '25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기업의 채용홍보 지원사업, 애로사항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새만금청은 '25년 주요 기업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과 임대주택 지원, 전문가 자문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총 7대 통근버스가 군산 주요지역 및 익산, 전주까지 운행되며, 올해는 1월 2일부터 끊김 없이 운행이 시작됐다. 새만금청은 올해도 기업수요를 반영해 근로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 최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확보도 작년보다 추진됐다. LH와 적극 협업해 '24년 79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전문가 자문 지원은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노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문이 지원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새만금청이 인근 교육기관에 홍보하는 등 기업의 고용활동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1:1 기업 방문간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며, 청취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피드백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최근 11.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며,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의 목소리에 경청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경제 '휘청'...제조업·수출·소비·고용 모두 하락, 경기 침체 우려

11월 취업자 1만2천명 줄어, 고용률 0.5%p 하락·실업률 0.1% 상승

제조업 생산과 수출 감소, 소비 위축, 고용 악화 등 전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실물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했다. 10월 0.9%

증가에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음료(-27.5%), 기타 기계·장비(-16.5%), 펄프·종이(-9.4%) 등이 주된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 실적도 부진했다. 11월 수출은 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했다. 특히 건설설비(-92.8%), 동제품(-41.5%), 자동차(-41.0%) 등 주력 수출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소비 부문도 활력을 잃은 모습이다.

11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도 2.8%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착공면적이 4.4% 감소했으며, 건축허가면적은 60.0%나 급감했다. 고용 지표도 악화됐다. 11월 취업자 수는 99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전년 동월(64.6%)보다 0.5%p 하락한 64.1%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0.1%p 상승한 1.6%를 나타냈다. /전북일보

주택시장의 경우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2821호로 전월(2799호) 대비 22호 증가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2% 하락했으나, 전세가격은 0.03% 소폭 상승했다. 한편,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4.4로 전월(91.6)보다 7.2p 하락하며 지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심리지수도 제조업(87.9)과 비제조업(87.1)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북일보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10개 유관기관 참여, 현장 방문 설명회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10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오는 15일 전북중기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설명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별·분야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대폭 확대했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수출, 소상공인, 창업, R&D 등 주요

사업을 담은 영상을 시리즈별로 제작해 중소기업부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주요 정보는 정책정보시스템인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전북중기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 수출,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창업, 보증(기술, 신용) 등 중소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과 전북도 등 각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 14까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직접 방문하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올해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전북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모호해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특수계량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책임 주체를 도시가스사로 규정하고 표준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시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로 향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돼 분납제로 청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

히 검토해 전북 지역 특성에 맞는 비용 체계를 마련했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도시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 냈다"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미공급지역에 배관 설치와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에너지복지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전북지역 김제 공덕 종로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김제 읍지, 부안 백산 등에 추가로 발생해 가족질병 방역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본부장은 김유현 농협김제시지부장, 전주김제완주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소독시설 방역상황을 점검해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월부터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 축협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46대를

전북교육청, '2025 전북교육계획' 발표

‘학력신장’ ‘책임교육’ 10대 핵심과제...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적용 · 초등어휘사전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초·중·고·특수학교장,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북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5 전북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교실(미래)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책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안전) ▲소통

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자치)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공동체)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 분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적용, 고교학점제 지원,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창단, 개념 기반 탐구수업,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확대, 창의 예술 미래공간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책임 분야에서는 초등어휘사전 1600,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전북형 CBT 시스템 도입, 중등 학생평가 서·논술형 문항 개발 전문가 연수 운영, 아침 10분 독서, 진로·진학지도, 차별없는 국·공·사

립 지원 등 학력신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학생생활교육 강화, 위기학생 예방 및 심리치유 지원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북에듀케어 지원 등이 추진된다.

자치 분야 사업으로는 전북학생의회 운영, 학부모 교육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 운영,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등이 있다.

협력 분야에서는 어울림·원도심학교 운영,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전북글로벌특

성화교 육성(10개교),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등이 추진된다.

공동체 분야에는 학생 해외 문화체험,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초등학교 영어리딩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중·고 영어 독해력 향상 집중 프로그램, 과학·수학 학력 신장 지원, 1학교 1인성 브랜드 운영, 찾아가는 ESG 교육이 포함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이 기본이 되어 사람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드는 데 모든 교육가족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에 두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평준화 고교 합격자 8,933명

오는 17일 오후 2시 학교배정 결과 발표... 도교육청 누리집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2025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학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소속 중학교,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고입전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배정 결과 발표는 오는 17일 오후 2시이며, 소속 중학교와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고입전형포털에 접속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학 모집정원은 총 9,005명으로 지원자는 9,218명이었다.

이중 전주 5,455명, 군산 1,820명, 익산 1,610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군산 35명, 익산 77명이었다고, 전주 없다.

전체 지원자 9,218명 중 221명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에 합격했다. 정원 외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는 별도 선발한다.

전주 지역은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589명 감소했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가 353명 감소하고, 특성화고 지원자가 367명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서거석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인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합격자 학교배정 공개 추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전기·후기 합격자의 모집 등록기간은 오는 20~22일이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국제문제 해결 창의프로젝트' 신설

학생들 글로벌 연합팀 구성해 국제문제 주제로 솔루션 제공... 국제 사회 실질적 문제 이해 · 해결 능력 배양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케다학30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전북대는 학생처 주관으로 '국제문제 해결 창의프로젝트(Global Issues Creative Solution Lab)'를 신설해 다학제적 접근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제 현

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모색하고 이를 해외에 적용·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국제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됐다. 수업은 문경연 글로벌융합대 학장을 비롯한 평화, 인권, 국제보건, 기후변화, 젠더, 경제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학생들에게 국제 문제와 관련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참여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다학제적 글로벌 연합팀을 구성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지난해 23일 개최된 공모전을 통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7개 팀은 다양한 국제

문제를 주제로 창의적 솔루션을 제시했다. 주요 주제로는 ▲전라북도 농업 중심 인구 유출 방지 모델 연구(호주) ▲한인 디아스포라 정착 지원 모델 연구(카자흐스탄) ▲한국 성소수자 권리 향상 방안 연구(대만) ▲저탄소 축산 농법 국제협력 모델 연구(우즈베키스탄) 등이 포함됐다. 이들 팀은 내년 1~2월 겨울방학 동안 해당 국가를 방문해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문경연 학장은 "지역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은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역량"이라며 "학생들이 국제 문제 해결 역량을 쌓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하고 동계 기초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우석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37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임소해 제식과 각개전투 등 군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24일 퇴소할 예정이다.

박노준 총장은 "훈련을 통해 얻는 경험이 향후 군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노준 총장과 이영준 학군단장, 남승필 군사학과장 등은 김동호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예방하고 학군단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겨울방학 기간 학습결손 막고, 기초학력 키운다

전주부설초등학교 1~6학년 대상, 올해 1~2월 중 '2025.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학년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2025. 전주교육지원청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학력 향

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주부설초등학교 등 30개 초등학교에서 1~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보충 학습과 특별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의욕 고취를 목표로 주 3회 이상, 총 20차시 이상 진행한다.

중학교 1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습도약 집중지원 캠프'는 오는 14~17일 전주학력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집중 학습 지원과 함께 학습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을 포함한다.

전주서중학교 등 7개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방과후

교과 심화 학습 프로젝트'는 주요 교과 심화 학습과 멘토링을 학교별 소그룹 수업 방식으로 주 3회, 1일 4차시로 진행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협의회에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경영대학, (주)스프레틱스와 업무협약 체결

전문인력 양성 · 상호 경쟁력 강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경영대학(학장 김효진)은 경영대학 201호에서 지역 인재 발굴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주)스프레틱스(대표이사 원태경)와 전문인력 양성 및 상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실습 및 취업 훈련 기회를 제공

하여 실무형 전공지식 및 창의적 실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경영대학 학생 대상 교육 인프라 제공 및 취업 적극 지원 ▲채용정보 공유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공공! 얼어붙은 겨울!

대설 주의보 행동요령

내 집앞 눈은 직접 치우기

눈길에서는 주머니 주머니 손배고 걸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노출부위 따뜻하게 보온하기

익산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역사문화도시 익산시가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문화가 이끄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에서 활동할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익산 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은 1995년에 창단한 향토 극단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받게 됐다.

작은소리와 동작은 다양한 연극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인력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구직활동 보장 100만원 지원

130명 규모 사회초년생 청년들 구직활동·생활안정 돕기... 오는 12월 12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졸업생(2024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으로 본인과 부모 중 한 명

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취업·구직생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30명으로, 서류 검토를 거쳐 접수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지급 요건의 사각지

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소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학수 시장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 정착지원금 참여자 모집

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360만원... 오는 2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

군산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에 464명의 청년을 선정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연 최대 36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역시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모집 인원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63명이다.

자격요건은 청년(18~39세)중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개발업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군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전북청년수당 혜택을 받았거나, 동일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승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차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 싶다면 전북청년 지역정착(청년수당) 사이트(www.ttd.ezvel.com)나 전북 청년 허브센터(www.jb2030.or.kr)에 접속해 참가 자격을 확인 후 증빙 파

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에 더욱 뿌리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빈소년합창단, 익산서 새해 희망 전달

오는 18일 오후 3시, 익산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개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프라노의 대명사 '빈 소년 합창단'이 8년 만에 익산을 찾는다.

익산시는 올해 527주년을 맞은 '빈 소년 합창단'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빈 소년 합창단의 익산예술의전당 공연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이어져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올리버 슈테히(Oliver Stech)의 지휘에 맞춰 슈베르트만 소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를 시작으로 성가곡, 가곡, 영화음악을 비롯해 민족의 한과 정서를 풀어낸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등으로 구성된다. 합창을 통해 따스하고 순수한 메시



지를 전하며 큰 위로와 소망을 선물한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 티켓은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설 명절 준비 단품미인소핑몰 최대 40% 할인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200여 품목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품미인소핑몰 설 명절 빅세일 기획전'을 개최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품질 정읍 한우, 지황육고, 쌍화차, 잡곡세트, 떡 등 명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시와 지역 생산자들이 협력해 마련한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정읍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특히 단품미인소핑몰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3000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상품들은 지역 생산자의 정성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선정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됐다. 모든 구매 상품은 우체국 택배로 무료 배송되며 설 명절 전에 받으려면 주문은 오는 24일 오전(신선식품은 23일 오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접수된 주문은 설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단품미인소핑몰은 인터넷 사이트 '단품몰'(http://www.danpoongmall.kr) 또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새해 소망 신평 달린 '익산소원열차', 관광객 무료

익산시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관광열차 상품 '익산소원열차: 소원이 뭐다?'가 특별한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익산소원열차'가 예매 시작 단 2일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관광열차 상품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총 300여 명의 참가자는 익산의 대표적인 소원 성취 명소를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관광객들은 열차 안에서 '사리장엄구 무드등 만들기'와 '소원 적기'에 참여하며 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익산에 도착해 자신이 만든 소원등을 들고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원불교총부에서 소원 탑돌이를 하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한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라면박물관 '보글하우스'와 '익산근대역사관'을 둘러보며 익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민생 회복 속도전' 상반기 1조 원 펀드

선금·기성금 활용, 신속집행 추진단 운영 등 대규모 시설 사업 공정·집행률 집중 관리

익산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1조 원 규모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이달 내 신속 집행 보고회를 열고, 올해 전체 예산 1조 8,000여억 원의 60.5%인 1조 원 상당을 상반기 내에 우선 집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규모 시설 사업의 공정과 집행률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수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금과 기성금을 활용하는 등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각 분야별 담당 국장을 반장으로 배치해 민생과 관련된 주요 사업별 재정 집행 현황을 촘촘히 점검·관리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이 발견되면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인 '다리로움' 발행 목표를 4,000억 원으로 하고, 상품권을 충전할 때마다 얻는 10% 추가 혜택을 연중 적용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다가오는 설 명절 소비 특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금이 순환하는 지역 경제를 이루겠다"며 "설 명절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화에 집중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국가유산 보존 26억 원 투입

고부면 고사부성리, 칠보면 불우현정극인 묘 등 보수·정비 시급한 유산 29개소 선정



정읍 무성서원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조선시대 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읍시가 지난해 134개 국가유산 전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시급한 유산 29개소를 선정하고 26억 1100만원을 투입해 보존·관리에 나선다.

올해 주요 보존 사업으로는 ▲고부면 고사부리성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 12개소에 9억 5500만원 ▲칠보면 불우현

정극인 묘 등 도 지정 문화유산 13개소에 15억 16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영원면 은선리 삼층석탑 등 4개소의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3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해 상반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에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18개소 ▲도 지정 문화유산 52개소 ▲국 지정 문화유산 11개소 ▲도 지정 문화유산 1개소 ▲전통사찰 10개소 ▲문화유산 자료 20개소 등 총 134개소의 국가유산이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FTA 피해 농가 돕는다! 정읍시, 식량분야 신청 접수

정읍시가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지원받는 제도로, 식량분야·축산분야·원예특작분야·임업분야로 나뉘어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식량분야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11개의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울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FTA로 피해를 입은 다른 식량작물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FTA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될 기대한다"며 "많은 농가의 참여로 이번 지원 사업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겨울방학 '공동돌봄 프로젝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군산시 사회적기업 (취청기)의 공동돌봄 프로젝트 "나랑 친구할래?"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지역 2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하 1층(군산시 대학로 600)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에어바운스, 미술체험존, 한국체협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타운 내부 구내식당과 카페도 이용 가능해 부모들의 편의까지 배려했다.

매일 40여 가구의 가족들이 참여 중이며 재방문율도 60%에 이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행사장 내 관리요원 배치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끄는 요인 같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추운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흥미를 느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1시민 1자원봉사' 활성화... 협약식 진행

익산시가 자원봉사로 시민 모두 하 나되는 행복 도시 만들기 위해 지난 10일 송학동 푸른솔치유 니티센터에서 1시민 1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익산시의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청년시청, 익산도시관리공단, 전북에너지서비스, 봉사단체대표 등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화해 함께하는 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1시민 1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봉사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열린 '2025년 익산시 자원봉사자 신년인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온기 나눔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가 주관했으며, 자원봉사를 통한 배려와 나눔,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 신년사, 축사, 자원봉사단체 인사, 오찬(떡국)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착수

공공시설물 지속적 증가, 체계적 관리 위해 예비검토 추진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를 추진중이다.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등을 거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공단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할 수 있으며, 공단은 공기업 유형 중 하나로, 일종의 공공사무 대행기관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규모는(2024년 8월 기준), 공단 101개, 공사 77개다.

도내에는 전주, 익산, 완주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운영중에 있

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요역이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 시에는 공단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치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주민의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최은미 부안군 직원, 공시 유공 표창장 수상

2024년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업무 추진력 탁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한 2024년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 공시가격 업무 유공 연말 표창에서 재무과 최은미(사진) 직원이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사업인 개별주택 조사사업 및 결정공시 업무 추진에 있어 탁월한 업무 추진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최은미 직원은 지난 2006년 3월에 부안군에 입사해 현재까지 18년간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업무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실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재무과에서 세금만 내는 줄 알았더니 땅까지 찾아 주네요!'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과 2024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부안군이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진 것도 과표팀 전원의 단합된 업무 능력과 다년간의 경험이 결집된 합작품으로 함께 일군 쾌거였다.

최은미 직원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부안군 개별주택 업무 추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됐고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전수관 운영위원장, 혁신정책 '찬사'

'육아휴직 배우자' 정책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들 연이어 제시



김제시의회 전수관 운영위원장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9대 후반기의 회를 이끌며 '지속 가능한 김제'라는 비전 아래, 전 위원장은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정책들을 연이어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 위원장이 제안한 '육아휴직 배우자'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이중 효과를 노린 탁월한 전략이라는 호평

을 받고 있다. 육아 인프라와 연계한 배우자 시스템은 젊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 위원장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교 육성안은 교육과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도심의 빈 점포를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구상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위원장의 출향민 귀향 지원 정책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귀농귀촌을 넘어 지역 연고를 활용한 맞춤형 정착 지원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수관 운영위원장은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수관 위원장의 혁신적인 정책 제안들은 김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봉준장군탄생제169주년·출생지고창서 기념행사 열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지난 10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169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등 군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무장기포 당시 복과 깡귀리를 들고 혁명에 앞장섰던 재인부대를 기리는 동리장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보건소, '인공지능 어르신건강관리' 개선 효과 ↑

고창군보건소가 시행하는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제 건강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첫 시행됐다.

신청받은 군민 169명을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한 뒤 활동량계(스마트워치)와 체중계를 지급했다.

또 질환여부에 따른 자가측정 스마트 기기(혈압계, 혈당계)도 지원했다. 주민들은 6개월 동안 맞춤형 실천 미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보건소, 금연 결심 군민 독려...지원·혜택 제공

부안군보건소(소장 박찬병)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독려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연을 결심한 군민들에게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금연 상담을 3개월간 3회 이상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금연보조제가 무료로 제공되고 금연 유지 동기부여를 위해 주기적으로 코티닌을 측정하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

고창군이 새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업 신기술보급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32억원이 투입된다.

총 6개분야 38개 사업으로 ▲농업경영분야 초보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 등 4개 사업 ▲생활자원분야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등 8개 사업 ▲환경농업분야 밭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 등 9개 사업 ▲경제작물분야 소과종 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특화작물분야 복분자 간이비거림시설 적용 시범 등 3개 사업 ▲새기술연구분야 복분자 건전묘 현장 실증재배 시범사업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연구회, 농업법인 등)이다.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담당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 및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행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풍지구 도시재생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16명, 2급 자격증 취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더스텝커피학원에서 '2024 신풍지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바리스타 양성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리스타 교육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15회차로 진행됐으며 2024년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및 마을카페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 20명은 에스프레소 추출, 라떼아트, 커피 음료 제조, 손님 응대 등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이론과 실기시험을 거쳐 총 16명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17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수강생들이 직접 제조한 커피 시음회를 통해 수강생과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기호 도시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자생 가능한 성장 기반의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건강한 '여가 활동', 김제 봉남면 게이트볼동호회 창단식 개최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게이트볼 동호회(회장 최규영)가 10일 봉남면 다목적체육관에서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식에서는 동호회 창립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동호회는 매주 정기적인 연습과 친선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을 상시 모집해 더 많은 주민들이 게이트볼을 접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규영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큰 기대감을 표했다.

나성희 봉남면장은 "게이트볼 동호회 창립을 축하하며, 동호회 활동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대시킬 지역사회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최대 35cm 폭설...제설작업 총력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비상근무조 운영

고창군이 지난 6일부터 고창지역에 폭설이 이어짐에 따라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이 눈 치우기에 나서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전을 전개했다.

고창지역은 지난 10일 오전 8시 평균 25cm(성내면 최대 35cm) 눈적설량을 기록했다.

고창군은 지난 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도로제설 및 상황관리를 위해 46명을 투입했다.

또 소금 750톤, 염화칼슘 250톤, 덤프 9대, 굴삭기 2대, 읍·면 트랙터 241대, 인도형 제설기 16대 등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 및 경사로, 교량, 결빙지역 등 34개노선 327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날이 갠 오전부터 군청 공직자들을 투입해 도심지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도심지 눈 치우기에 투입된 공직자들을



고창군이 지난 6일부터 고창지역에 폭설이 이어짐에 따라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이 눈 치우기에 나서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전을 전개했다.

격려했다.

심덕섭 군수는 "많은 눈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군민과 공직자 모두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집 앞 눈 쓸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심 군수는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피해 예방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범시민·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장바구니 사용·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범시민적으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장 볼 때는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에 담아가기'·'플라스틱 빨대 및 컵 사용 줄이기'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참여 당부·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

법에 대한 안내·홍보물 배부 등으로 전개됐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범시민적으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 ▲다회용 컵 사용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 컵 및 접시 사용 ▲개인 휴지통이 아닌 공동 분리수거함을 사용 ▲일회용 우산 비닐 덮개 대신 빗물 제거기 사

용 권장 등 생활 속 실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성주 시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식 개선과 깨끗한 김제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도 시민들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美 실리콘밸리 통해 인재 육성

남원 고등학생들, 26일까지 미 실리콘밸리서 글로벌 창의교육 시작 동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래모빌리티분야 이노베이션 교육 발대식 성료

전북대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원시 학생들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미국에 방문,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적인 혁신 환경에서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을 배양하며 미래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최근 전북대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지난 9일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동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분야 이노베이션 교육'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남원시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발대식에는 남원시와 전북대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관계자, 참가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교육 일정과 세부 계획, 현지에서의 주의 사항과 안전교육이 안내됐다.

이번 발대식 이후 참가 학생들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1박 14일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본격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산호세주립대학 교수진과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남원시는 최근 전북대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지난 9일 '동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분야 이노베이션 교육'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며, 실리콘밸리 내 애플, 구글과 같은 유명 기업을 방문해 혁신 생태계와 첨단 기술 트렌드를 배우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 사고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강의와 멘토링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리콘밸리 내 유명 기업과 대학을 방문하며 현장의

혁신 사례를 체험하고,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구제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프로젝트 발표와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참가자들의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대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이일재 단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남원시와 전북대학교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과 협력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남원시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이달 내 자동차세 선납 시 세액 공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1년 세액 4.58% 공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되며, 1월에 선납하는 경우 4.58%, 3월 3.8%, 6월 2.5%, 9월에 신청 시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워렛,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명성화학 신이봉 대표 춘향장학재단에 1천만원 기탁

지난해 12월 남원 광차농공단지 소재 명성화학(대표 신이봉)이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남원 장학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신이봉 대표는 현재 춘향장학재단 수석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이봉 대표는 지난 2015년 1억원의 장학기금 기탁 협약을 맺은 후 매년 1천만원씩 장학기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금년도 10번째 약속을 이행해 10년간 총 1억원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신이봉 대표이사사는 "작은 정성이 모여 남원 지역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남원의 우수한 학생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경식 이사장(남원시장)은 "항상 지역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10년간 꾸준히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해주신 신이봉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기탁해주신 장학기금은 지역 인재 양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삼례-이서 문화관광 허브도시로"

유희태 완주군수가 10일 연초방문지로 이서면과 삼례읍을 각각 찾아 혁신도시 문화·관광 허브도시로 육성할 뜻을 밝혔다.

이서혁신도시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진한다. 콘텐츠 창작스튜디오, 기업 입주지원실, 콘텐츠 전시·체험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혁신융합 캠퍼스 건립이 완료됐다. 5.692㎡ 규모로 조성된 캠퍼스에는 치유농업과,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이차전지소재부품과가 운영된다.

또한, 지난해 8월까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역임한 유 군수는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 촉구 ▲혁신도시 특별지원 규정 신설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클러스터 용지 금지항목 재검토 요청 등의 안건을 채택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전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중, 권상연 유해가 발굴된

이서면 남계리 유적의 국가사적 등재도 추진한다.

40년 만에 인구 2만 명을 회복한 삼례읍은 문화·관광 허브 거점으로 육성한다.군은 고간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 삼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에는 우석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완주우석전망대 W-SKY23을 개소하는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에 더해 작년에는 전북특자도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4년 동안 총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체류형 관광 인프라 '스태이 삼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사업, 마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삼례공설운동장 전북현대 B팀 홈구장 활용 등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또한, 전주시와 상생사업을 통해 삼봉지구-에코시티 병목구간의 도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가 확장되면 주민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10일 전북교통문화연수원과 MOU...교통정책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구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자리를 잡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10일 진행된 현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익시 완주군의회 의장, 권오안, 윤수봉 도의원, 군의원들과 공단 이사, 관계기관 협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상징적인 첫 출발을 축하했다.

현판식과 함께 전북교통문화연수원과 업무협약식도 이뤄졌다.

양 기관은 ▲완주군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교통정책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

력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이에 더해 교통에 대한 교육 경험을 공단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전북특자도 군 단위 최초로 설립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법기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설립 타당'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청회, 설립심의회, 조례제정, 설립등기와 임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공단

의 정상 가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달 초에는 위수탁협약을 맺고 공영 마을버스, 고산자연휴양림, 공설장사시설 등 5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군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 이사장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공단은 현재 군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일선현장에서 다양한 노후유를 축적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설맞이 행복순창물 농특산물 할인 행사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선보인다.

군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직영 온라인 쇼핑몰 '행복순창물'에서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푸짐한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회원들에게 3,000포인트를, 새롭게 가입하는 신규 회원들에게는 2,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준비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서둘러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번 설맞이 특별 할인전에서는 순창을 대표하는 발효식품인 전통 고추장을 비롯해 장아찌, 절임류 등 다양한 전



통 식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도 특별가로 준비돼 있어 설 선물 고민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순창물은 변화하는 온라인 소비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23년 7월에 문

을 연 군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특히, 현재 행복순창물은 지역 농가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벼 재배면적 감축...혜택 지원 등 농가 동참 유도

완주군이 지역 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나선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산업,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배정한 완주군의 올해 감축 목표는 388ha다.

군은 원칙적으로 휴경을 하고 그 외 다른 작물 전환, 녹비작물 식재, 친환경

인증 벼 전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라작물직불제의 품목확대(깨신설) 및 단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우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해당 시·군 신청 사업자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공급 과잉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 현장에 사 상황을 고려하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농가들이 동참해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의무조정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공무원 퇴임·이임식 개최...공로패 전달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퇴임과 퇴직준비교육 발령에 따른 공무원 퇴임·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이임 공무원 5명과 가족, 후배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이임) 예정자 소개, 공로패 전달, 송별사, 이임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5명의 공무원들은 공

직 임문 이후 평균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베테랑들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순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임 공무원을 대표해 소감을 전한 오근수 전 기획예산실장은 "퇴직 후에도 순창군을 사랑하고 응원하겠다"고 순창군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무원 '친절 다짐' 교육...민원 역량 강화

완주군이 새해를 친절 다짐으로 시작하고 있다. 군은 민원실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친절 다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실 근무 직원을 일일 친절교육 교관으로 임명해 사례별 중심으로 친절 다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비해 업무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민원 예절, 민원인을 배려하는 언어, 상황별 응대 표현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부서별 친절도 조사,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처리 마일리지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민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완주군의 민원행정 서비스는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을 획득한 후 지난 2023년 재인증을 받았다.

또한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직무교육 진행

순창소방서는 지난 9일 10명의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순창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는 신임 의용소방대원 10명, 순창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여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임명장 수여, 기본소양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당부사항 전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순창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현재 22개 대 430명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구조 등에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조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창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창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이미나)은 "어려운 이웃에게 의용소방대의 이름으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순창소방서장은 "어려운 모두가 항상 변함없는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군, 2월 말일까지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지도·점검

임실군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게 사전 안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024년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과 관련해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스시스템)을 이용해 2024년 실적보고서를 내달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도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준공되는 연도의 실적은 15일 이내에,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공사의 해당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제출대상자는 폐기물(건설, 의료, 지정 포함)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 과정의 실태를 파악해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한 실적 제출을 당부했다."

기타 올바로스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063-279-0803) 또는 올바로스시스템 콜센터(1644-0007)를 이용하면 된다.

/임실=정해영 기자

무주군 복숭아연구회·적상면 농촌 지도사회, 각 2백만원 장학금 기탁

무주군 복숭아연구회와 적상면 농촌지도사회가 지난 10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각 1백만 원씩 총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 복숭아연구회는 군 연합회와 6개 읍면지역 단체 등 총 7개 회 151명의 회원들이 고품질 복숭아 생산과 회원들의 역량 강화(교육 및 품평회)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복숭아 품평회를 비롯한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의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한편, 적상면 농촌지도사회는 무주농업발전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농약 병병 및 영농 폐기물 수거, 영농 부산물 파쇄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날 기탁한 장학금도 활동 수익금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귀식 회장은 "앞으로도 무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은 관내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요조사는 마을주민, 연구회, 농업인단체 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은 골격계 질환, 넘어짐 안전사고, 농약중독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화됨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하는 마을, 연구회, 농업인단체는 희망장소, 인원, 교육 희망시기를 정해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063-350-2832)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로컬푸드, 누적 매출 400억 돌파

6년 연속 꾸준한 성장...매출액 90% 농가소득으로 환원, 농민 소득안정 버팀목

진안군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이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확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전주시 호성동에 문을 연 진안로컬푸드는 지난 5일 개장 이래 6년 만에 누적 매출 4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군로컬푸드 매출액의 90%가량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고 있어 농민 소득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안로컬푸드에 진열되는 품목은 축

산물, 달걀, 잡곡, 청과 등 995종이며 350여종이 가납품한다.

이 가운데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을 견인한 품목은 청정 진안고원에서 사육한 고품질 축산물로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 유통마진 없이 지역 축산농가로 부터 직접 납품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진안군은 이와 같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맞추어 사업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먼저, 진안군민들에게 신선한 지역 먹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에 개장한 진안점은 누적매출 6억원과 구매고객 18,000명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울러, 진안군은 민간건물에 임차 운영 중인 전주 호성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개년 사업을 통해 이전할 계획이다.

총 1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호성점 신축이전 사업은 올해 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설계를 거쳐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뚝심' 심 민 임실군수, 2025년 핵심사업 강력추진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일관 행정...천만관광 실현·민생현안경제활성화군민 복지 향상 방침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일관성을 지닌 행정을 통해 2025년 종시여일(終始如一)의 각오로 군정 주요 핵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군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3선인 심 민 군수의 일관적이며 또 강력한 추진력 아래 진행한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핵심 현안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심 민 군수는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입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군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종시여일(終始如一)의 마음으로 군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 모두가 주요 사업들이 면밀한 계획 아래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3년차, 성과 창출과 군정 발전을 이룰 핵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사업별 로드맵과 쟁점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한 작년 임실 방문객이 888만 명으로 천만관광 임실시대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을 점검하고, 군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2025 임실 방안을 해 추진과 함께 대외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임실여행 숙박비 할인과 특



별한 임실 투어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투어, 찾아가는 방문의 해 홍보단 등을 운영해, 누구나 찾고 싶고 오고 싶고 임실을 알릴 예정이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풍성한 특색있는 사계절 축제 준비할 계획이다.

민생현안과 밀접한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빈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운암면 소재지에 조성 중인 한우 특화거리 개장과 임실시장 음식특화상가를 올해 완공, 본격적 운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실·오수 제2농공단지 기업 유치 및 입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

무협약을 2월 체결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지역 다양화 및 확대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시행 중인 관내 학교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군 자체 아동수당 지원과, 여자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도 연 4대에서 6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실 파크골프장, 불령장과 스포츠센터를 겸비한 국민체육센터, 임실 문예터 등 문화·체육 시설 확충과 임실·오수·관촌 풍수해 생활권 정비,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기반조성 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임실=정해영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추진

7개 읍·면 순회 군민들이 묻고 군수가 답하는 군민 중심 소통 행보



최훈식 장수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계남면을 시작으로 7개 읍·면을 방문하며 군민들과 신선 인사를 나누고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읍·면 순회기간 동안 국장 및 과장 등 군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표 경로당 등 지역 시설을 방문해 노고를 격려한 후 각 읍면의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주민 등의 지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날 순회 방문은 오전 오후 일정으로 나

뉘 ▲14일 계남면, 계북면 ▲15일 장계면, 천천면 ▲16일 번암면, 산서면 ▲17일 장수읍 순으로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종합복지회관 등에서 진행된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군정 방향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자주 찾아 뵈고 건의사항을 듣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군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작년에 실시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에서 접수된 총 103건의 건의사항 중 수용 43건, 장기검토 33건, 타기관 건의 12건, 수용불가 15건을 처리하는 등 군정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우수상'...2,500만원 확보

진안군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활용 현황을 분

석·진단해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공유재산 업무처리 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 및 활용의 적절성 등 관리 분석·진단 지표별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진안군은 공유재산 대장정비,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민, '2036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염원

11개 읍·면 주민 마음 모은 플래카드 퍼포먼스 진행

진안군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며 11개 읍·면 주민과 함께 피켓 플래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180만 도민들의 열정과 희망이 담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과 함께 첫 진안군 개최라는 쾌거를 달성한 '2026년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전 읍·면에서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민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염원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려 도와 진안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군에서는 도민체전 첫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한 만큼 철저한 준비로 진안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앞서 '2024년 진안군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과 '2025년 신년인사회'에도 군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전 읍·면에서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민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염원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려 도와 진안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군에서는 도민체전 첫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한 만큼 철저한 준비로 진안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2월 13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추진

무주군이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지난 9일 시작했다.

내달 13일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농민마당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총 9회)으로 총 3개 분야 7개 품목에 관한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황재창 과장은 "이번 교육이 귀농인들에게는 기초지식을,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올해 영농계획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사과와 복숭아, 블루베리 등 총 3개 품목

교육이 공통 과정으로 진행되며 무풍면 사과와 설천면 포도, 무주읍 복숭아, 적상면 복분자, 안성면 천마, 부남면 고추 등 읍·면별 특화 품목 교육도 이어진다.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에 따라 사과 교육 시 화상병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읍면별로 재배 품목이나 규모가 다른데 이를 반영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며 "갈수록 기후변화에 일손 부족은 심각하고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치매치료비 소득제한 없이 실비지급

임실군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자에게만 지급했으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 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이내 실

비 지급하는 제도다.

이로써 군은 치매 노인인구 초로기 치매 진단자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예방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40-337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정해영 기자

장수군,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은 농작업 한파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현장기술지원 일제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7cm 이상의 적설누적 후 지난 10일에는 최저기온이 -19.8℃까지 떨어지며 한파영향권에 들어갔다. 장수군의 주요 재배 농작물로는 양파, 토마토, 사과 등이 있으며 특히 시설과채류의 경우 최저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갈 경우 동해피해

가 우려돼 철저한 시설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현장기술지원의 주요내용은 ▲노지작물 동해예방을 위한 피복관리 ▲한파피해 경감위한 담양지도 등이다.

최훈식 군수는 "한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월동작물의 동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부안 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신년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

부안군 주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신년을 맞아 사랑담은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을 맞아 이웃에 대한 정과 사랑이 담긴 떡국떡을 각 마을회관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떡을 전달하며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채수택 주민자치위원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떡이 주민들의 새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사랑과 온정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용성 주산면장은 "매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군, 김문철내과의원 200만원 덕유산프러그육묘장 150만원 기부

장수군 장계면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부의 주인공은 장계면 김문철내과의원(김문철 원장)과 덕유산프러그육묘장(강병욱 대표와 아들)이다.

김문철 원장은 지난 9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날 장계면은 강병욱 대표와 아들로 부터 150만원의 성금을 기탁받았다. 기부자들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조장호 면장은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이 실천되고 있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을 잘 전달하겠으며 나아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WFK 청년봉사단, 인도네시아서 봉사 전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 26명과 2주간 해외 봉사활동 펼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는 '제47기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 단기봉사단' 29명이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4박 1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청년봉사단은 한국대학사회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해외 봉사활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2회(하계,동계)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 2개국에서 지속적인 해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전국 각 지역 대학생 26명과 인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제47기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 단기봉사단'이 14박 1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솔자 3명 총 29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제47기 WFK 청년봉사단 인도네시아팀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세원(sewon)지역 탐블하르조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또 청년봉사단은 인도네시아 현지 가정의 홈비지iting과 가지마다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한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과 팀워크를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정기 후원기관 헬프나우, 기저귀·분유 정기후원

작년 한 해 동안 600만원 상당 기저귀·분유 등 후원, 2015년부터 10년간 후원 꾸준

군산 드림스타트의 정기 후원기관 인 헬프나우(대표 김경화)는 지난 9일 기저귀와 분유를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그간 군산 드림스타트는 헬프나우의 후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기들에게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왔다.

실제로 헬프나우는 작년 한 해 동안 600만 원 상당의 기저귀, 분유, 유아농

분유 등을 후원했으며, 2015년부터 10년간 꾸준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경화 헬프나우 대표는 "군산시의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 역시 "장기적으로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주신 헬프나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좌측부터 민원인 박oo, 드림스타트 계장 강영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최윤영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제주항공참사 2백만원 지원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민철)은 지난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된 후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철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폐차장, 500만원 기탁...나눔 캠페인 동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흥사동에 소재한 김제폐차장(대표 김병중)이 지난 10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관내 저소득 가정을 돕고자 마련된 성금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김병중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폐차장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나눔의 분위기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새집 추어탕, 춘향장학재단에 5백만원 전해...8년간 4천만원 기탁

지난해 12월 남원의 추어맛집 새집추어탕 서정심 대표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남원을 대표하는 추어 음식점 새집추어탕의 서정심 대표는 (故)서삼례 창업주의 기부 정신을 따라 춘향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해 8년간 총 4천만원을 기탁했다.

서정심 대표는 "창업주의 기부 정신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8년째 장학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하며, "기탁한 장학기금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식 시장(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몇 년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기탁해주신 새집추어탕 서정심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라온회, 설 맞아 소외된 이웃 위한 백미 100포 전해

순창군 봉사 모임 '라온회'(회장 임종학)가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kg 100포(250만원 상당)를 순창군에 기탁했다.

라온회는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단체로, 이번 백미 기탁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임종학 회장은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라온회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탁해 주신 백미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무주명가 김민주 사장, 지역사회에 2백만원 나눔 실천

무주명가 김민주 사장이 지난 10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 등 총 2백만원을 기탁했다.

김민주 사장은 "2015년 식당 운영을 시작해 벌써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역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무주명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백만 원 씩 총 5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도시가스 절약 하는 방법

-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도)설정하기
- ◇ 적정습도 (40~60%) 유지하기
- ◇ 적정 온수 온도(40도)설정하기
- ◇ 온수 사용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 놓기
- ◇ 보일러 외출 기는 이용
- ◇ 방한용품 활용 하기
- ◇ 보온용품 착용하기
- ◇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 하기
- ◇ 보일러 청소 생활화 하기



〈一事一言〉



트럼프 냉대한 윤석열, 윤석열 디스하는 트럼프(2)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6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신호탄이었다. 그는 내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일삼은 야당이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같은 날 오후 한덕수 총리는 마지 권한대행이 의회 위에 존재하는 권력양양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그 다음날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야당 의원을 지금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나'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김태호 안보1차장을 핵심으로 한 외교안보팀은 그 동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펼친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외교를 구사했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태도였다.

그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 몸으로 두 명의 주군을 모실 수는 없다'는 듯 트럼프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미국 대선 기간 중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측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듯이 트럼프 캠프를 홀대했다. 또 트럼프 캠프를 지원하는 싱크 탱크를 띄엄띄엄 봤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2024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4월에는 기업의 초청으로 세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8월에는 서울에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열린 한미 차세대 연합 컨퍼런스에 '빌드업 코리아 2024'에 참석했다. 4월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직후였다. 3월 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의 출마자격 유지를 결정했고, 5월에는 경선에 남아 있던 유일한 경쟁자 니키 헤일리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직후였다. 그러나 트럼프 주니어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와 전혀 만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인식했다면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그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트럼프 후보와도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캠프의 실세로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어도 '윤 정부'는 그를 문전박대했던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야 그쪽과 연이 있다는 기업 인사나 목사를 통해 줄을 대보려 하지만 이제는 '윤 정부'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했던 김홍균 차관조차 아예 트럼프 측과는 회동자

체를 포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 왔고 이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차기 미국 정부와는 회동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했다.

이런 정도로 '디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일본과도 대비가 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경쟁에 뛰어든 이후부터 그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촉면을 넓혀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트럼프 캠프를 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던 미국우선주의연구소 조사단이 6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을 비롯해서 방위성과 외무성 차관 등이 환대했다. 트럼프 1기 국방부 차관과 제대군인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윌키 미국우선주의연구소 명예 펠로우가 9월 방일했을 때는 가미카와 요코 외상뿐 아니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도 회담을 했다. (트럼프 캠프의 싱크탱크에 대해서는 서재정, 「트럼프가 돌아온다, 북미 정상회담

도 돌아오나?」 참조)

이런 노력의 결과 12월 15일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는 트럼프 부부와 플로리다 자택에서 만찬을 했다. 이 만찬 후 트럼프 측은 1월 중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남을 제안했다. 당초 취임식 전 이시바 총리와 만남을 고사해왔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홍균 차관은 그 일주일 후 미국을 방문했지만 트럼프 측과 만날 계획도 잡지 못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다리던 소식은 전해주지 못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뒤끝이 있는 남자'다. 정적은 철저히 응징하고 충성파는 제대로 챙겨주는 사 람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제1의 공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트럼프 측을 외면했던 윤석열,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9년 만에 반등한 출생아 수에 주목하자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은 인구 구조가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는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반등의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8년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감소와 출산을 저하로 급감했던 출생아 수가 코로나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추세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0~13세 인구의 두 배에 육박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인구 증가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연금 개혁 지연과 돌봄·의료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려야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비혼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박육아와 임금·승진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유입 정책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북도는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과 함께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도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농업과 연계한 고령 인구의 생산적 활동 지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전북도의 노력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제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은 희망의 신호탄이다. 전북도는 이를 타산지식으로 삼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고창 무장객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궁궐·관아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45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법률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새해 인사 / 나태주

글쎄, 해님과 달님을 삼백예순다섯 개나 공짜로 받았지 뭐니까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뭐니까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았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이제 또다시 삼백예순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시인 약력 ;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공주사범 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주 장기초교 교장을 끝으로 4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쳤다. 교사 재직 중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숲 아래서'로 등단했고 1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풀꽃'이 있다.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주문화원장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43대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도민의 제보가 지역 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https://www.jeonbuktimes.co.kr

2025년 남원시정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남원 만들기'



◆ 시민의 일상을 지킬 '민생회복' 최우선, 국립기관 유치 통해 남원 build-up, 영호남 교육 특화도시로 도약

민선 8기 4년 차로 접어드는 2025년 최경식 호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목표는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하는 것과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영호남 교육 특화도시'로 남원을 빌드업시

키는 일이다. 이를 방증하듯 시가 새해 가장 급선무로 추진한 일은 최근 탄핵 정국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상수도 요금인상을 유예하고, 1월 한달간 남원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이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중장기적으로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 남원 실현하기 위해 '국립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등 민선 8기 후반을 만족시킬 액션 플랜까지 펼치고 있다. 또한, 20대 대선공약이었던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의 경우, 지난해 남원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최종 부지가 확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는 등 제2의 양지인 선수를 배출할 인재 양성 환경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부분 역시 올해에 후보지가 최종결정되는 만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올해는 후보지 BC분석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미니 인터뷰 / 최경식 시장

"발분망식(發憤忘食) "정신으로 달라진 남원 만들겠다"

"지난해, 우리 남원은 시정 전반에 심어둔 '변화'의 씨앗이 소중한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를 보낸 만큼 이를 토대로 올해는 '발분망식(發憤忘食)'이니까지도 있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하다.'의 정신으로 새로운 남원, 달라진 남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주신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계셨기에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 등 그야말로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단단히 다졌다"면서 "눈부신 성과를 함께 이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지금 우리는 예기치 못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지혜와 통찰력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푸른 뱀처럼, 새해에는 민생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과감히 전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지난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새로운 남원, 달라진 남원을 만드는 데 더 혁신하고, 행동하고, 무엇보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남원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늘 성원해주신 만큼 모두가 꿈꿔온 자랑스러운 남원,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드는 달라진 남원! 혁신하고 있는 남원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경찰교육특화도시 ▲드론·바이오 산업도시 ▲천만 문화예술관광도시 ▲스마트농업혁신도시 ▲살고 싶은 강소도시 등 5대 도시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 통해 드론·바이오 산업도시

남원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드론, 바이오, 곤충산업 등 핵심 과제를 올해 더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특별히 철도, 도로, 드론·UAM 등 항공운송 기반 구축과 연계로 미래형 첨단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간다.

실제로 드론 분야의 경우,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상시 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전국 최대 규모 실내 드론 레이싱 경기장인,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예산 확보에 더 매진할 계획이다. 남원역 인근에 첨단 드론스포츠활성화 지원센터 조성도 추진하며, 대표 가을 축제로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등을 통해 남원을 드론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올 안에 드론 항공기 앵커 기업 5개사 협약을 유치하는 한편, 일반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법인세 등 세제감면) 통해 분양률도 35.5%에서 50%까지 높이는 등 투자 기반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 달빛내륙철도 개통에 앞서 남원이 유일하게 남원이 환승역이 될 수 있는 만큼 'KTX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본격 대응하는 등 첨단물류도시 남원조성에 불씨를

당길 예정이다.

◆ 글로벌 관광 거점 '천만문화예술관광 도시' 구현 제2의 빌바오 기적' 꿈들

남원시의 '천만문화예술 관광 도시'만들기 전략도 이목을 끈다.

남원시는 현재 관광루원 중심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합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등 문화, 관광 성장의 토대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합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도자·옷칠목공예전시관, 김병종미술관(제2관), 키즈아트랜드, 북학문화관 등 주요 도입시설 실시설계 추진, 전북자치도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어디서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남원관광 1,000만 시대를 조속히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피오리움(달빛정원), 스마트 루나를 준항제 이전에 개관하는 등 낮과 밤이 어우러진 남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원읍성권 정비 및 활용계획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해자 양마장 설계 및 정비 등 남원성 복원 복원을 본격화하며 만인공원, 만인의 총 일대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은 올 상반기에 준공한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축제로 전환된 제95회 춘향제는 올해 '소리'를 주제로 200만명 관광객 유치, 1,300억원 경제효과를 목표로 4월 30일부터 5월6일까지 더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올해 남원시는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천후 기지로 더 거듭날 예정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기존 사업 선정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지난해만 7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2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166억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182억원),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추진에 이어 본 사업추진까지 본격 추진하면서 기존 3년 단기 임대형 스마트팜의 한계를 보완해 최대 10년(5+5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정주여건 개선 통해 살고 싶은 강소도

시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실현

시는 '살고 싶은 강소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해 올해 출산·교육·복지시스템 완성을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공공산후케어센터 다온'을 준공, 원정 출산을 막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을 통해 남원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도울 계획이다.

정주하고 싶은 도시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교육여건'은 올해부터 더 좋아진다.

남원시는 올해 공립학원 성격의 '인재학당' 준공과 지정 운영 준비를 넘어 지난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완성한다.

이외에도 교육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경찰·스마트농생명·케이팝 등 특성화 교육육성 준비하는 등 교육 중심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남원복지안전 119센터를 비롯한 전국 최초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진료 추진 등 남원형 돌봄안전망 구축을 통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추진이 본격화된다. 특별히 올해 '제1형 당뇨 병환자 지원 사업' 신설 추진, 19세 미만의 경우 전체 대상, 19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각각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폭넓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
부안 Buan | 고창 Gochang | 영광 Yeonggwang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범국민 서명운동

2025. 1. 31. 까지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고창군 홈페이지
고창군 읍면사무소
주요 관광지, 고창군청



*서해안 철도 :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철도 교통망